朝鮮華藏寺의 梵筴과 印度指空三藏

駒大教授 岡 教 達

此論文은 昨年九月一日發行 朝鮮研究叢第三卷五號에 揭載된 것인바 別서부하 수리 佛教誌上에 譯載하야 諸分으로 제하였스나 譯者의 一身上 所忙함을 因하야 有意未盡하다가 이제야 지우 大藤印哲 研究室로부터 問疑를 借覽하고 譯載하는 바이니다。 그런데 此論文은 問題가 人目을 끄는 이만큼 內容의 價値가 있사오니 有志의 一讀을 乞하나이다

——金 洙 榮 譯——

一、緒 言

朝鮮京畿道長淵郡寶鳳山華藏寺의 舊藏에 係한 貝多羅葉梵筴一葉은 明治三十六年頃 東京帝室博物館에 移管하야 現在歷史第九十五號의 番號가 부여되었다。本年五月廿三日秀古學會 第三十一回總會에 石田茂作氏가 紀念業績에 刊行하야 同會員의게 頒布한 貝葉經이 곳 그것이다。

二、梵筴의傳來

此梵筴이 엇지하야 華藏寺에 傳來하엿는가 불상피전대 此寺는 李能和氏著 『朝鮮佛教通史』 上編三五三頁에 參考로써 引用한 『西天提納薄陀尊者浮圖銘幷序』 李穡氏撰文 (宣光八年戊午五月日立) 又 『大日本佛教全書·遊方傳叢書』 第四에 도 揭載하엿다고 하엿스며 同史下編 『長淵寶鳳山華藏寺事蹟』 에 依하야 考

察하전대 支那元朝文宗皇帝天曆元年庚寅 (西紀一三二八) 印度僧指空三藏이 高麗에 遊行할제 親히寶鳳山에 올라서 繼祖庵에 幽棲하면서 스사로 華藏이라고 扁額한 靈地이다。 그런데 三藏示寂後二十三年即洪武十八年乙丑 (西紀一三八五) 에 高麗의 恭愍王이 敬慕의 餘에 支那楊州禪巖寺로부터 三藏의 遺骨을 高麗寶鳳山에 迎하야 繼祖庵을 華藏寺라고 改稱하고 새로히 堂宇를 建立하엿다。 「事蹟」 에 依하면 此寺內에 恭愍王의 自畫像과 指空三藏의 塑像을 安置하고 또한 三藏의 將來한 貝葉經一筴幷牛頭旃檀香一條를 所藏하야 잇다고 記載하야 잇다。 그것은 「舊峴文集」 에 收在한 華藏寺重建記를 보아서도 알수 잇나니 重建記를 略引하면 左와 如하다。

寺는 幾旬長淵府寶鳳山에 在하니 其舊藏한 梁上에 短識를 觀하전대。 洪武十八年乙丑에 麗王이 淨刹을 繼祖庵蘭若의 遺基에 剏하고 額曰華藏이라하니 乃指空의 命한바이라。 先是麗王이 指空의 風采를 嘗聞하고 傾心渴求하야 此를 引見하고 所言을 皆從하니 蓋剏刹立堂도 亦從指空之誤而爲之也—라 故로 寺에 麗王의 像과 指空의 像이 有하야 令人仰慕케하며 亦指空齎來의 貝葉經一筴과 牛頭旃檀香一條가 有하니 我孝廟—潛邸에 在할時에 燕에 入하야 降眞香을 取하야 寺僧에 錫한바이니라 由是로 寺多奇物하며 東有指空定慧熙照塔하니라云云。

今東京博物館에 所藏한 貝葉經歷史第九十五號는 正히 此指空將來本을 指함이라고 斷言한다。

그런데 指空三藏의 傳을 看하전대 初度의 時 임의 中印度那蘭陀寺에 在하야 律賢論師로부터 大般若經을 學하고 支那雲南의 龍泉寺 夏坐時에 스스로 梵字의 般若經을 書하고 亦淮西寬이 般若의 意를 問할時에 三心不可得이라고 答한바가 잇스며 又錫蘭島의 普明律師로부터 指空의 法號를 授與한것으로써 觀察하전대 確實히 指空三藏은 般若經을 所依로하야 中論思想을 有한 持律家엇든것이 推定된다。

그러나 此貝葉經이 곳 雲南龍泉寺에 在할時 指空三藏의 自寫이라고 하기는 速斷하기 어려운일이다。 왜그러냐하면 假令雲南에 잇서서 此를 書寫하엿다할지라도 『華藏寺重建記』 에 指空所齎來之貝葉經一筴이

라고 記하였을 뿐이요 直筆이라고는 明記하지 아니한 까닭이다。그러나 梵文의 字體를 볼 ㅅ 것가 ㅌ면 三藏同時代의 書風임을 否定할 수 업는지라 將來本이라고 보는 것이 至當하겟다。

三、梵筴의 內容

此梵筴은 縱二寸 橫一尺一寸六分의 平面을 有한 多羅葉一枚인데 兩面에 七行式 三段으로 梵文이 記錄되야 잇다。그 梵文字體는 밥싸—럽인데 西曆 十二三世紀頃 印度에 流行하든 書風이다。그런데 右端에는 「八一」이라고 貝葉의 枚數 番號를 記하얏고 左端에는 「루—수—쏘다」라고 經函數의 番號가 記錄되야 잇다。그리고 此梵文에 무엇이 書寫되엇ㅅ느냐 하면。

梵、Astasahasrikanamaprajna, paramita, saraparivarto namasaptavisatitamah.

漢、名八千頌般若波羅密（經）名堅固品第廿七의 一部分인데 임의 漢譯 一切藏經中에 存在한

北天竺烏塡曇國帝釋宮寺三藏傳法大師賜紫施護等奉詔第九譯

佛說佛母出生三法藏般若波羅密多經 二十五卷

（大正新修大藏經第八卷五八七——六七六頁）中의 堅固義品第二十七의 終末分（正・藏・八卷六六三頁・B二〇行中程——同C一九行中程）에 相當한 經文이다。또는 西紀一八八八年 印度甲谷陀市 벤갈—亞細亞學協會에서 出版한 八千頌般若（Bibliotheca Indica; Astasahasrika, by Rajendralala Mitra）에는 「四五四頁」・一四行末分——四五六頁・二行末分」의 梵文에 相當한 經文이다。그런데 此梵文의 漢譯을 引할 ㅅ 것가 ㅌ면 아래와 같다。

（闕文）無礙、尊者所說無礙亦然、帝釋天主作是說已即白佛言、世尊、如我所說、是隨如來說、是隨法語答不、佛告帝釋天主言、憍尸迦、如是如是、如汝所說、是隨如來說、名爲正說、是隨法語答、名爲正答、憍尸迦、彼須菩提、有所樂說、皆因於空、而般若波羅密多尙不可得、何況有行般若波羅密多者、阿耨多羅三菩

提羅三尙不可得、何況有證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一切智尙不可得、何況有證一切智者、眞如尙不可得、何況有住如者、無生法尙不可得、何況有證無生者、菩提尙不可得、何況有求菩提者、十力尙不可得、何況有具是力者、四無所畏尙不可得、何況有成就無所畏者、法尙不可得、何況有說法者、憍尸迦、彼須菩提如是樂行一切法遠離、行一切法無所得行、須菩提、行如是行、比諸菩薩摩訶薩行般若波羅密多行、百分不及一、千分不及一、百千分不及一、俱胝分不及一、百千俱胝那庾多分不及一、算分數分及譬喩分、乃至烏波尼殺曇分皆不及一、憍尸迦、唯除如來所行、餘諸菩薩摩訶薩、行是般若波羅密多行者、於一切行中最上最大最勝最妙 （以下闕文）

指空和尙은 一般이 아는 바와 가치 朝鮮佛敎에 大功績이 잇스니 禪敎、無學과 가치 一切佛事의 職掌位에 잇는 一節만으로도 足히 그 法力 道量을 推酌할 수 잇고 長淵郡 鄕藏寺는 事實로 秘刹 開拓한 靈場이다 그러 지금 紹介하는 이 貝葉을 藏寺를 因하야 발서 十有餘年 前에 엇던 拘寺者의게 見失한 바인데 厥後에 그 下落을 搜聞하야 東京帝室博物館에 收容됨 것을 曾聞하였더니 何幸昨年秋에 그 雜蹄를 通하야 開敎授의 論文에 「宗敎硏究」에 揭載됨을 知하고 敎諭를 即時 購覽으로 자하얏스나 여러가지로 懶宜를 이지 못하야 不得已 案荷君의 旅獄에 依賴하였더니 紛忙 중 중 라서 그 全文을 譯送하였기에 此에 揭載하거니와 이 揭載를 臨하야 더욱이서로 感謝 중 것은 貝葉과 한가지 持來한 梅檀 모 ㅂ 서 그 下落을 모른지 아오래며 和尙의 使用하는 바라는 假面도 遺失하고 和尙의 塑像과 함께 嶺寺에 奉하든 慕慈王의 自畫像도 燒破되엇스며 다시금 水年三月八日에 그 靈場인 鄕藏寺를 觀覽의 機會에 임하여 보니 오직 寂默 一棟에 和尙의 塑像만이 獨然 獨坐하게 됨 今日임일세다 그리나 氏의 論文中에(三頁三行目下)「高麗恭愍王이 敎墓의 餘에 支那 楊州 檜岩寺로부터 三藏의 遺骨을 高麗寶風山에 迎하야 招提庵을 華藏寺라 改稱하얏다」는 句節은 조금 誤記이니 楊州 檜岩寺가 支那가 아니라 朝鮮에 여 三藏의 遺體를 支那天竺寺에서 茶毘하고 그 舍利만 이門人 什玄、 迦叡의 持歸한 바되고 遺骨은 東來한 것이 엇스며 舍利도 檜岩寺에 塔藏하고 華藏寺로 迎來한 것이 엇지 ㅂ 이 저 遺骨을 迎하얏다 云云한 것은 氏의 考覽時에 맛이 이 錯覺을 因함에 라하노라

——編輯室 附言——